

# 전주구도심, 전통문화중심으로 본격조성

## 김승수 전주시장, 대상지 현장점검 나서

전주시가 올해 전라강역을 시작으로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구도심 330만㎡(100만평)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전주 구도심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구도심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 약 143㎡(43만 2575평)에 총 105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본격화했다는 것은 아시아 문

화심장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전주시청을 기점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과 오거리문화광장, 영화의 거리, 전라강역로, 전라강역 보행중심테마거리, 풍남문 일원, 남부시장, 고(구)호 물자골목 등 주요 사업 대상지를 돌며,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들과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시장은 공공기관의 서부신시가지 이전 등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국비 91억원 등 총 182억원이 투입돼 전라강역로 특성화사업 등 13개 마중물사업이 추진되는 구도심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 구도심에서 추진 중인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

고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협업사업과 자체사업 등 나머지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쇠퇴일로에 있던 구도심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활성화된 지역인 한옥마을이나 영화의거리 방문객을 구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구도심 전체의 균형 재생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재생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가동에 마련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서포터즈 운영 등 주

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과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달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사항이 최종 확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구도심 100만평은 다른 어떤 도시도 갖지 못한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이자, 한옥마을의 성공을 확산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터전이다"며 "쇠퇴한 구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전주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 전국 물관리 달인, 장재홍 전주시 수질분석팀장 선정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4일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환경타임즈, 환경방송 GKBS 주관, 환경부와 제주도에서 후원하는 2017년 '물관리 달인'에 장재홍 수질분석팀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4일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환경타임즈, 환경방송 GKBS 주관, 환경부와 제주도에서 후원하는 2017년 '물관리 달인'에 장재홍 수질분석팀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중요시 되는 때 '물관리 달인' 선정은 의미

가 있다. 이날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장재홍 수질분석팀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26년간 수질업무만 담당할 수질전문가로 통해 동료 직원들이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주 지문을 구할 정도로 유명하다.

또한 △2000년도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제33호) 자격 취득 △2007년 국제환경경영체계(ISO 14001)를 2002년 12월 취득, 대외 공신력 확보 △2009년부터 환경부주관 전국 정도관리 평가(AQC)에서 총 8회 '최우수 성적' 달성, 수질 분석 능력의 우수성 및 신뢰도 확보 기여 △2007년부터 전북에서 최초로 각 가정을 방문, 현장 수질검사 및 먹는 물에 관한 상담을 하는 수도물 품질인증제 추진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 예코 스마트 상수도 사업 추진을 통해 수질 연속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통합 운영하는 등 24시간 수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수도물 안전성 확보에 헌신해왔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전통한지의 명맥 이어온 전주한지장 4명 선정

30년 이상 한지 제조공장 운영 · 제조기술 보유 · 전수 등 전통기술 지킴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한지 장인 4명이 전주한지장(韓紙匠)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 한지위원회'를 열어 김찬중(69·전일한지), 최성일(50·성일한지), 김갑석(63·전주전통한지), 김인수(60·용인한지) 씨 등 4명을 전주한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전승·보존하기 위한 전주한지장(韓紙匠)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주 한지장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전주한지장들은 30년 이상 전주에서 한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전통한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전수하면서 묵묵히 전통기술을 지켜온 인물들이다.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장인들에게는 전주한지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는 전통한지의 전통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지난해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전주시 한지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한지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고 장인 선정을 위해 타 지

역의 장인과 대학교수 등 기술전문가 4인을 현장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한지장 선정에 나서왔다. 이들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원료처리 및 초기제작 등 전통제조기술, 시설 점검, 한지에 대한 이해, 전수에 대한 의지 등을 포함한 현장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한지장 지정을 통해 전승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전주 전통한지 제작의 명맥을 보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지장 선정을 통해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터를 채워

나갈 무형유산관련 콘텐츠가 강화되고, 한지공예 활성화로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위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한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주한지장 선정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한 무물을 펴며 노력해 온 분들에게 전주한지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적으로 전주 한지 제조기술의 전승을 위하여 전통적 요소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하여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형사입건

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최모씨(31,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2시57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3km 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최씨의 차량을 신속히 멈춰 세웠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최씨가 역주행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면허취소 단계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김민근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량 훔쳐 운전한 40대 불구속 입건

전북 김제경찰서는 24일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5분께 익산시내 한 음식점 앞에 세워진 1트럭을 훔쳐 김제의 한 소방센터 앞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J-한류 상품판매전시장 개소식

전주시가 지역 ICT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의 중국수출 전진기지인 거점형 상품전시장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업체들이 이곳을 활용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인민일보문화전매유한공사 1층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청위진 인민일보문화전매유한공사 한국대표처 대표, 참여기업 대표, 지역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J-한류 상품판매전시장'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 IT·CT기업의 판로개척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된 J-한류 상품판매전시장에는 지역 내 IT·CT기업 약 30개사의 IT/SW, 문화콘텐츠

(CT) 분야 제품과 서비스가 상설 전시된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인민일보와의 협력을 통해 전주시와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을 강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J-한류 상품판매전시장이 새롭게 배후되는 스타트업(Start-up)기업의 유통 및 제품 홍보의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비자 요구를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 매장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이끌어낸 J-한류 상품판매전시장을 지역ICT기업 등의 해외시장의 전초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전주시는 학교가 개학하는 봄철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시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근로자와 주말 순찰반 등을 가동, 어린이 보호구역

과 초·중·고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애러리아이트 등 불법 유통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김영재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